

## ■ 국내 콘텐츠산업 사업체의 인력부족 추이 ■

유은영(KOCCA 통계정보팀 주임연구원)

사업체가 정상적인 경영 및 생산 활동을 위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력을 부족인원이라고 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사업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져 수익구조가 악화되게 되고 이는 투자 부진으로 이어져 사업체가 인력채용을 오히려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인력부족해소를 위한 노력 및 인력수요의 예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업체의 현원,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중 콘텐츠산업과 연관성이 큰 대표적인 5개 산업인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현원,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콘텐츠산업의 인력부족률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인력수요를 간접적으로 추측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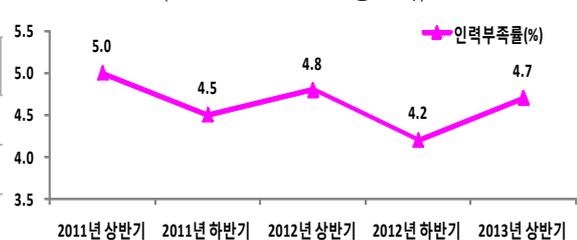
출판업의 2013년 상반기 부족인원은 8,952명, 채용계획인원은 8,689명으로 부족인원 보다 채용계획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2011년 상반기부터 계속되어오다 2012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부족인원 보다 채용계획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3년 상반기에는 다시 부족인원 보다 채용계획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하반기에는 인력부족률도 4.2%로 가장 낮았으며, 출판업은 매 반기 약 5%대의 인력부족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출판업 현원,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추이  
(2011년~2013년 상반기)

(단위 : 명)

구분	2011년 상반기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2012년 하반기	2013년 상반기
현원	165,784	164,052	174,641	172,874	180,781
부족인원	8,665	7,747	8,768	7,634	8,952
채용계획 인원	8,176	8,550	8,252	7,747	8,689

<그림 1> 출판업 인력부족률 추이  
(2011년~2013년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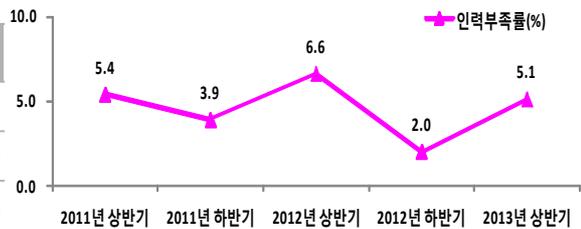
- \*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 현원 : 조사기준일 현재 사업체에 근로하고 있는 전체종사자 수(상용, 임시·일용,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 포함)
- \* 부족인원 : 조사기준일 현재 채용여부나 채용계획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
- \* 채용계획인원 : 조사기준일부터 6개월 사이에 채용할 계획이 있는 인원
- \* 인력부족률 : 현원에 부족인원을 합한 전체인원 중 부족인원 비율, [부족인원/(부족인원+현원)×100]
- ※ 출처: 고용노동부(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재구성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의 2013년 상반기 부족인원은 1,386명, 채용계획인원은 1,378명으로 부족인원 보다 채용계획인원이 적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 하반기까지는 부족인원 보다 채용계획인원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2년 하반기에는 채용계획인원이 부족인원의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부족률은 부족인원이 1,000명 이내인 2011년 하반기와 2012년 하반기에 각각 3.9%, 2.0%의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2012년 상반기에는 부족인원이 1,500명이 넘어 인력부족률 또한 6.6%까지 증가했다.

<표2>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현원,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추이(2011년~2013년 상반기)

구분	2011년 상반기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2012년 하반기	2013년 상반기
현원	20,163	21,002	21,867	19,680	25,592
부족인원	1,154	855	1,547	393	1,386
채용계획인원	1,098	1,405	2,216	702	1,378

<그림2>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인력부족률 추이(2011년~2013년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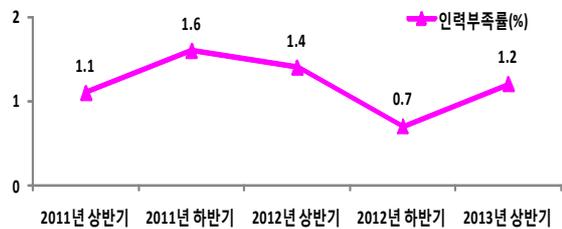
- \*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 현원 : 조사기준일 현재 사업체에 근로하고 있는 전체종사자 수(상용, 임시·일용,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 포함)
- \* 부족인원 : 조사기준일 현재 채용여부나 채용계획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
- \* 채용계획인원 : 조사기준일부터 6개월 사이에 채용할 계획이 있는 인원
- \* 인력부족률 : 현원에 부족인원을 합한 전체인원 중 부족인원 비율, [부족인원/(부족인원+현원)×100]
- ※ 출처: 고용노동부(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재구성

방송업의 2013년 상반기 부족인원은 303명, 채용계획인원은 292명으로 부족인원 보다 채용계획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인원과 채용계획인원이 거의 동일한 2012년 하반기를 제외하고는 2011년 이후 부족인원 보다 채용계획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방송업의 경우 산업이 안정적이고 부족인원이 많지 않아 인력부족률은 1%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3> 방송업 현원,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추이 (2011년~2013년 상반기)

구분	2011년 상반기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2012년 하반기	2013년 상반기
현원	24,806	25,533	25,261	23,282	25,963
부족인원	264	420	355	169	303
채용계획인원	247	336	291	170	292

<그림3> 방송업 인력부족률 추이 (2011년~2013년 상반기)



- \*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 현원 : 조사기준일 현재 사업체에 근로하고 있는 전체종사자 수(상용, 임시·일용,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 포함)
- \* 부족인원 : 조사기준일 현재 채용여부나 채용계획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
- \* 채용계획인원 : 조사기준일부터 6개월 사이에 채용할 계획이 있는 인원
- \* 인력부족률 : 현원에 부족인원을 합한 전체인원 중 부족인원 비율, [부족인원/(부족인원+현원)×100]
- ※ 출처: 고용노동부(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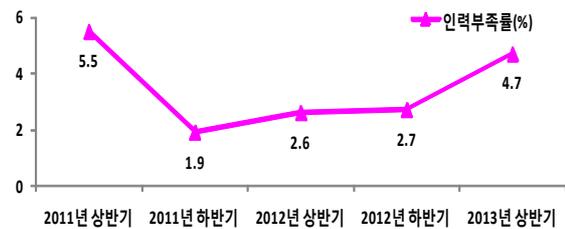
정보서비스업의 2013년 상반기 부족인원은 1,589명, 채용계획인원은 1,776명으로 부족인원 보다 채용계획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서비스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2011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2011년 이후 부족인원 보다 채용계획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부족률은 부족인원이 1,500명 이상인 2011년 상반기와 2013년 상반기에 각각 5.5%, 4.7%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부족인원이 1,000명 이하인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 하반기까지는 인력부족률이 3%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정보서비스업 현원,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추이 (2011년~2013년 상반기)

구분	(단위 : 명)				
	2011년 상반기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2012년 하반기	2013년 상반기
현원	29,077	26,958	31,962	29,970	32,047
부족인원	1,679	523	861	820	1,589
채용계획인원	1,644	597	870	899	1,776

- \*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 현원 : 조사기준일 현재 사업체에 근로하고 있는 전체종사자 수(상용, 임시·일용,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 포함)
- \* 부족인원 : 조사기준일 현재 채용여부나 채용계획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
- \* 채용계획인원 : 조사기준일부터 6개월 사이에 채용할 계획이 있는 인원
- \* 인력부족률 : 현원에 부족인원을 합한 전체인원 중 부족인원 비율, [부족인원/(부족인원+현원)×100]
- ※ 출처: 고용노동부(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재구성

<그림 4> 정보서비스업 인력부족률 추이 (2011년~2013년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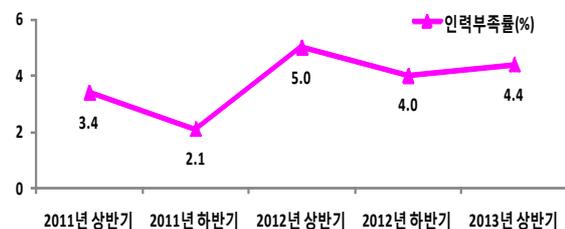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2013년 상반기 부족인원은 1,023명, 채용계획인원은 988명으로 부족인원 보다 채용계획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하반기를 제외하고는 2011년 이후 부족인원 보다 채용계획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하반기에는 부족인원이 500명을 넘지 않아 인력부족률도 가장 낮은 2.1%를 보였다. 인력부족률은 2012년 상반기에 부족인원이 1,000명을 넘으면서 5.0%로 크게 증가했다가 이후에는 4%대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현원,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추이 (2011년~2013년 상반기)

구분	(단위 : 명)				
	2011년 상반기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2012년 하반기	2013년 상반기
현원	19,854	19,731	21,126	21,942	22,113
부족인원	708	419	1,121	909	1,023
채용계획인원	692	501	1,027	794	988

- \*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 현원 : 조사기준일 현재 사업체에 근로하고 있는 전체종사자 수(상용, 임시·일용,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 포함)
- \* 부족인원 : 조사기준일 현재 채용여부나 채용계획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
- \* 채용계획인원 : 조사기준일부터 6개월 사이에 채용할 계획이 있는 인원
- \* 인력부족률 : 현원에 부족인원을 합한 전체인원 중 부족인원 비율, [부족인원/(부족인원+현원)×100]
- ※ 출처: 고용노동부(201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재구성

<그림 5>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인력부족률 추이 (2011년~2013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5개 주요업종의 현원,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1년 하반기와 2012년 하반기에는 사업체가 정상적인 경영 및 생산 활동을 위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력을 의미하는 부족인원 보다 채용계획인원이 전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콘텐츠산업 고용상황과 경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시기에는 부족인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전반기대비 크게 감소해 인력부족률도 전체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과 정보서비스업은 전체적으로 부족인원 보다 채용계획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상황이 좋은 편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보서비스업은 2011년 하반기 이후 채용계획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업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부족인원 보다 채용계획인원이 적지만 차이가 크지 않고, 현원대비 부족인원의 비중이 워낙 작아 인력부족률이 1% 내외로 5개 산업 중 월등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업을 제외한 4개 산업의 인력부족률은 시기별로 변동폭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2%~6%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판업과 방송업은 인력부족률의 변동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 살펴본 현원,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통계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므로 근로자 1~4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의 비중이 큰 콘텐츠산업에 이를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러나 콘텐츠산업 사업체의 현원 및 부족인원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콘텐츠산업 사업체의 고용상황 및 사업체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어느 정도의 인원이 더 필요한지를 알 수 있었으며, 채용계획인원을 살펴봄으로써 콘텐츠산업 인력수요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콘텐츠산업 세부영역에 대해서도 이러한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대상도 영세한 국내 콘텐츠산업의 특성에 맞게 1~4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콘텐츠산업은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효과가 큰 산업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국내 콘텐츠산업 또한 아직 그 규모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콘텐츠산업의 올바른 고용정책 수립 및 창출된 고용의 균형 있는 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 콘텐츠산업 부문의 다양한 고용통계가 생산되어야 할 것이다.